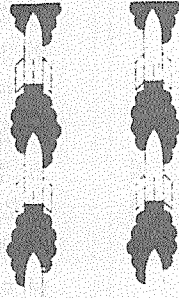


電子工業日誌



〈'94.5. 1~5. 31〉

- 5. 2 : 상공자원부, 「설비투자동향조사」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총 8조 8,535억원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투자실적인 4조 7,472억원 보다 86.5%가 늘어났다고.
- 5. 3 : 특허청, 환경관련기술에 대한 발명을 장려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특허기술상 등 포상기회를 확대키로.
- 5. 4 : 상공자원부, 332개 기관 및 단체 기업을 컴퓨터 및 통신설비로 접속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「종합산업정보망 사업추진방안」과 「산업정보망 사업추진요령」을 발표.
- 5. 10 : 특허청, 그린라운드(GR) 기술라운드(TR) 경쟁라운드(CR) 등 신라운드의 분야별 대책반을 가동키로 했다고.
- 5. 11 : 공진청, 올해 60개 업체 '95년 100개 업체, '96년 150개 업체, '98년 200개 업체 등 모두 710개 업체에 대해 공장 자동화(FA) 지도를 실시키로 했다고.
- 5. 11 : 상공자원부, 무역관리를 사전 승인제에서 사후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「FDI형 무역관리시스템」을 구축키로 했다고.
- 5. 14 : 상공자원부,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신체절기술, 액정소자(LCD), 기반기술 등 모두 15개 핵심기술을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으로 확정, 우선 금년중 총 57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.
- 5. 16 : 상공자원부, 초고속 정보통신(수퍼하이웨이) 기반구축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, 운영키로 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까지 종합발전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라고.
- 5. 17 : 특허청, 오는 '96년부터는 CFC류 냉매를 일절 사용치 못하

- 고 세계 각국에서도 이미 개발한 NON-CFC류 대체냉매의 기술보화에 주력하고 있음에 따라 이 분야의 특허문제가 심각해질것으로 예상하고 국내기업들도 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.
- 5. 18 : 상공자원부, 올해의 유망선진 기술기업으로 92개업체를 선정,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지원하는 한편 기능인력의 병역특례조치 등 행정지원도 할 계획이라고.
- 5. 19 : 파기처, 2006년까지 ATM 교환기를 상용화하는 한편 광고환스위치 개발을 완료하고 전자산업요소기술 중 전자세라믹부품기술 등 10대 핵심기술을 선정, 집중육성키로.
- 5. 19 : 체신부, 정보통신진흥기금의 '94년도 사업계획(2,460억원)중 1차사업 지원대상으로 225개 업체, 234개 과제를 선정 총 99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.
- 5. 20 : 파기처, G7 프로젝트 등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지난 해보다 40%가 많은 1,48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했다고.
- 5. 20 : 정부, 전략고도 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를

5년간 전액면제, 그뒤 2년간은 50% 감면하고 지방세 감면(50%)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줄 방침이라고.

- 5. 21 : 체신부, 정보통신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10개 수출유망통신기기를 선정, 수출입관리 및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지도 등 제반 지원조치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고.
- 5. 22 : 상공자원부, 현재 12% 수준인 반도체장비의 국산화율을 '98년까지 50%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이 본더 및 다이어 본더 등 22개 반도체장비분야 기술을 올해 중기거점 기술과제로 선정했다고.
- 5. 24 : ETRI, 캠코더 등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하는 저전력 영상신호용 ADC(아날로그 디지털 변환) 칩의 개발에 성공 했다고.
- 5. 26 : KAIST, 핵융합 실험 및 1G(기가) D램급 초고집적 반도체 개발 등에 이용되는 테라와트(1조W)급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이 국내 기술에 의해 개발했다고.
- 5. 27 : 공진청, 국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업간 생산 기술정보 발표 및 공동기술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교류회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.
- 5. 28 : 정부, 오는 '97년까지 총 864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고속중형컴퓨터인 주전산기 IV를 개발하는 등 컴퓨터 기술개발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.
- 5. 28 : 정부, 정보산업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현재 기기산업 부문에 국한에 운용되고 있는 국제 표준화 사업을 통신망·통신방식, 방송방식 등으로 확대해 나아가갈 방침이라고.